

## 코레일 “부지 팔겠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급물살’

광주시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매입 비용 180~200억 예상

개발부지 문제 갈등으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개발부지 확보 문제를 두고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과 사업자 측간 입장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각에 3년여간 부정적이었던 코레일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광주송정역 환안 관계기관 대화회의’에서 부지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지매입 비용으로는 180억~2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는 시비를 최대한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광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서희건설 60%, 교보증권 30%, KT 10%)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5000억원, 지상 11층 규모로 구성된 사업계획은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사업비 2489억원, 부지 1만7000㎡, 지하 5층에 지상 9층 규모로 축소됐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여과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복합역사와 환승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착공은 커녕 개발부지 사용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은 사업예정자의 ‘부지 수의매각 또는 임대’ 요구에 3년여간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중 코레일 측은 지난해 연말께 조건부 임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사업예정자 측이 ‘임대 조건이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또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코레일 측은 30년 장기 임대 이후 기부채납, 임대료 이외에 이익금의 10%를 요구한다. 공사기간 중 송정역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등의 임대 조건을 제시해 이를 사업 예정자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부지 절반 이상을 보유한 코레일과 사업예정자인 서희건설 측은 임대와 공개 입찰 매각만을 내세우다가 세월만 보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운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진들이 수차례 국토부와 철도공사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에 코레일 측이 매각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역은 KTX 개통 뒤 1년간 승객이 240% 급증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등 이용자의 불만이 커졌다.

광주시 박남주 교통건설국장은 “코레일·철도시설공단과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송정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지정 신청 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골든힐스타워 사기 분양 파문 ▶6면

이난영 탄생 100년 목포가 뜨겁 ▶11면

혁신도시 혁신하다-정주여건 ▶18면

## 신진 작가 발굴·지역 밀착형 전시

광주비엔날레재단, 37개국 97팀 119명 참여작가 발표  
5·18 토론의 장 ‘녹두서점’ 재현 ... 문화전당서도 전시

올 광주비엔날레는 신진작가들을 대거 기용하고 다양한 지역밀착형 작품을 선보이며 기존 행사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를 확정 발표했다. 유명 작가부터 신예까지 37개국 97팀(119명)이 참여해 영상, 설치, 평면, 퍼포먼스 등



5월 무더위 ‘문화 피서’ 광주시 낮 최고기온이 31도 기록한 22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공연장 잔디밭을 찾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실험적이면서 참신한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와리드 라드(Walid Raad), 미하엘 보이틀러(Michael Beutler), 히토 슈타이어(Hito Steyerl) 등 국제 현대미술계 인기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박보나, 차재민, 이주요&정지현, 이정민, 정은영, 강서경, 전소정씨와 함께 광주 출신 청년작가 박인선, 김철아 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노동 환경과 개발 중심 자본주의 사회 현주소를 은유와 추상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여 전시 공간을 확장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재미술관, 5·18민주운동기록관 등 광주 곳곳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일부 작가들은 전시장을 소재로 한 작업 구성에 들어가 5·18, 무등산 등과 관련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현장 중심 작품들이 제작되면서 신작 비율도 어느 행사보다 많은 40%에 이른다. 스페인 도라 가르시아(Dora Garcia) 신작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녹두서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주요 거점이자 토론장이었던 녹두서점을 재현한다. 1980년 5·18 당시 격문과 투사화보 등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활동을 워크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철회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 성명

“지방자치 여행 결과 좌시못해

특별법시한 2022년까지 유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23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전국 8개 지역 대표인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 다원화 ▲국민대통합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등에 역행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정부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기로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방침은 지역언론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기금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연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신문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을 6년 연장했는데도, 정부는 입법 목적의 이행수단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

다”고 했다.

협회는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서울 중심의 독과점 상태인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고 지적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특별법 시한인 2022년까지 유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이런 기금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또한 지역신문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마저 든다”며 “정부가 기금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2016 내가슴愛약속

##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